

이렇게 기도합시다 (1) Pray Like This (1)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합시다 Knowing the One We Pray to (마태복음 Matthew 6:9-13)

- 1.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Pray to the almighty God who controls history.
- 2.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Pray to our God, not my God.
- 3. 아빠 같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Pray to God who is like a father.



1.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면 기도할 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The Lord's Prayer begins with "...who is in heaven." God who listens to our prayers is the sovereign Almighty of history. What mistakes do you make in prayer if you forget who God is? How should we pray to God "who is in heaven"?

2. 주기도문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품고 배려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느 1:3-4)?

The Lord's Prayer is a prayer to our God. Therefore, we should not pray selfishly for ourselves but care for the needs of our neighbors. Who do you pray for? What can we learn from Nehemiah's prayer (Neh 1:3-4)?

3. 주기도문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생활이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The Lord's Prayer is a prayer to the Father God. It is an amazing privilege to call God "our Father." How should your prayer life change if you believe in God who never ignores us but always gives us what is best?

